

개인신용평가체계 현황 및 발전방향

2013. 11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연구소
김정인 소장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개인신용평가의 사회·경제적 영향
2. 신용관리의 필요

II. 개인신용평가의 이해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등급
3. 개인신용평점 산출시 활용정보
4. 개인신용평점 분류
5. 금융회사 활용현황

III. 신용 인프라의 이해

1. 신용정보 공유 필요성
2. 신용정보 공유 역할과 효과
3. 신용정보 공유 현황
4. 신용정보 취급기관

IV. 개인신용평가체계의 문제점

1. 신용평가 괴리감
2. 저신용자 금융접근성 악화

V. 새로운 개인신용평가체계, K-Score

1. 개발배경
2. 개발경과
3. 기본사상
4. 주요특성
5. 기대효과
6. 주요결과
7. 발전과제
8. 운영계획

I. 서론



1. 개인신용평가의 사회 · 경제적 영향
2. 신용관리의 필요

1. 개인신용평가의 사회 · 경제적 영향

가계신용시장 1천조 시대에 즈음하여, 개인신용평가의 적용범위와 강도가 확대·강화되고 있음

개인신용평가의 활용

금융회사의 신용거래 의사결정

- 신규고객 심사전략, 기존고객 관리전략 등
(금융회사 경쟁력의 핵심)

정부의 금융정책 수립

- 저신용자 규모 파악, 서민금융대상자
선별기준과 사후관리 등

비금융거래 의사결정

- 사업계약 체결, 부동산 매매, 휴대폰 개통 등

**개인신용평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증대**

2. 신용관리의 필요

개인신용평가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현대 신용사회에서는 신용도 곧 자산으로, 신용관리를 잘 하면 대출·카드한도를 높일 수 있고 대출이자 등의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신용관리 사례]

윌리엄은 신용보고서를 조회한 결과 **현재 자신의 신용평점이 660점**임을 확인했다.

신용평점이 660에서 689점 사이인 자신이 신용관리를 통해 신용평점을 **720점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추가적으로 **총이자 \$7,510를 절감**할 수 있고 신용관리를 잘못하여 **589점 이하로 떨어진다면 총이자 \$19,9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년 후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윌리엄은 신용평점을 높이기 위해 연체 잔액관리, 주거래은행지정, 신용평점 확인회수 제한 등의 신용관리를 위한 생활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신용관리는 자산관리의 시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신용관리의 지름길

Ⅱ. 개인신용평가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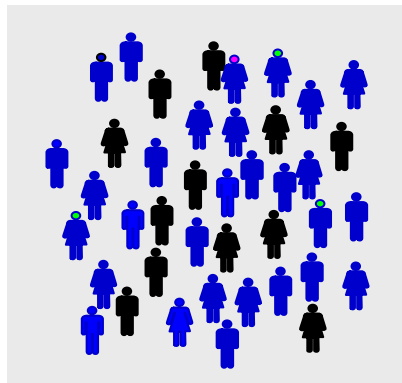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등급
3. 개인신용평점 산출시 활용정보
4. 개인신용평점 분류
5. 금융회사 활용현황

1.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은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신용정보를 가공한 모형을 통해, 향후 1년 내 심각한 연체(90일 이상)가 발생할 확률을 제공

- KCB 개인신용평점의 범위는 1~1000점으로 평점이 높을수록 불량률*이 낮음을 의미

* 불량률 : 신용평가일로부터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의 심각한 채무불이행이 최소 1회 이상 발생할 확률 (이하 동일함)



개인(신용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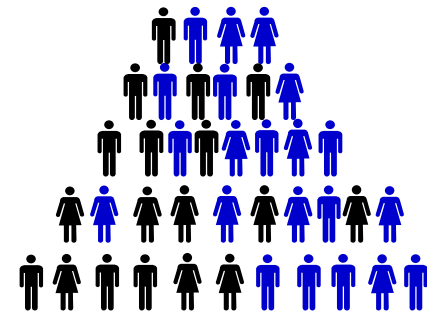
 신용우량차주

 신용불량차주

통계적 방법론

$$\ln(\text{Odds}) = \ln\left[\frac{P}{1-P}\right]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p X_p$$

개인신용평점



불량률
높음

불량률
낮음



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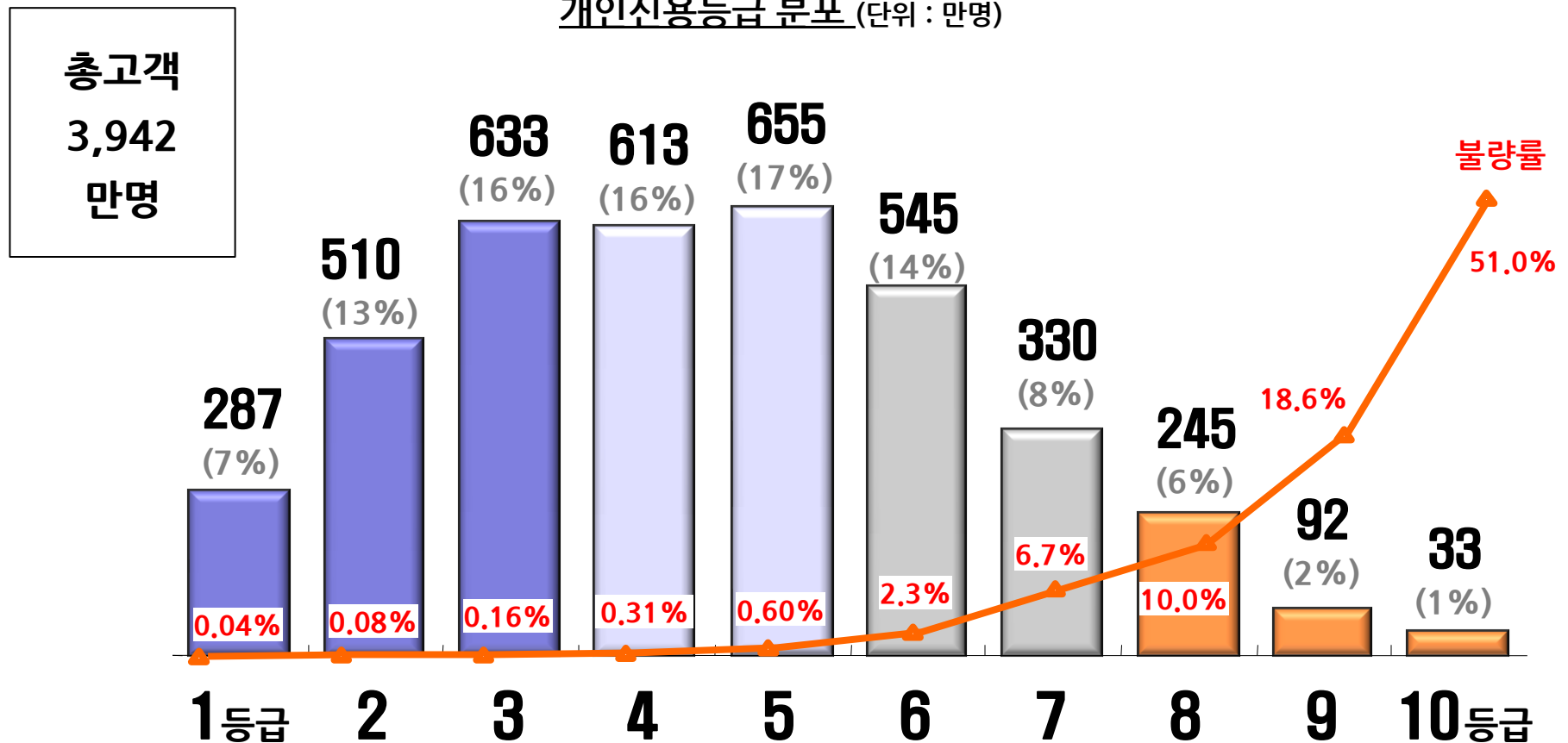
703



860

2. 개인신용등급

KCB 개인신용등급은 금융회사의 활용 편의를 위해 개인신용평점을 10개 구간으로 분류한 것임



※ 신용평가체계 공시 기준, '10년말

3. 개인신용평점 산출시 활용정보

KCB 개인신용평점은 연체 뿐만이 아니라 부채수준, 신용형태 등을 균형 있게 반영

- 신용조회정보는 최초 출시(2007)부터 활용하지 않음

활용정보 유형	설명	활용 비중 ¹⁾	
		KCB	미국(FICO)
상환이력 정보	연체의 기간, 금액, 빈도	25%	35%
현재 부채수준	대출금액, 카드이용금액 등 보유 부채	35%	30%
신용형태 정보	보유상품 유형, 상품별 계좌건수 등 거래형태	24%	10%
신용거래 기간	최초/최근 신용 거래의 이력기간	16%	15%
신용조회 정보	최근 조회건수 등	미 활용	10%

1) 활용비중 : 제시된 비중은 전체 고객 평균으로, 개별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적용비중이 다를 수 있음

[참고] 개인신용평점 산출 [예시]

구분	평가항목	배점구간	배점
1	연체건수	0건	300
		1건	80
		2~5건	20
		5건이상	0
2	총 대출잔액	1천만원 미만	200
		1~5천만원	100
		5천만원이상	0
3	신용카드(한도) 소진율	0~30%	300
		30~90%	200
		90%이상	50
4	신용거래기간	20년이상	200
		10~20년	100
		10년미만	0

대출신청자 A

- 연체 없음
- 대출잔액 5백만원
- 신용카드소진율10%
- 신용거래기간 15년

대출신청자 B

- 연체 1건
- 대출잔액 2천만원
- 신용카드소진율30%
- 신용거래기간 20년

4. 개인신용평점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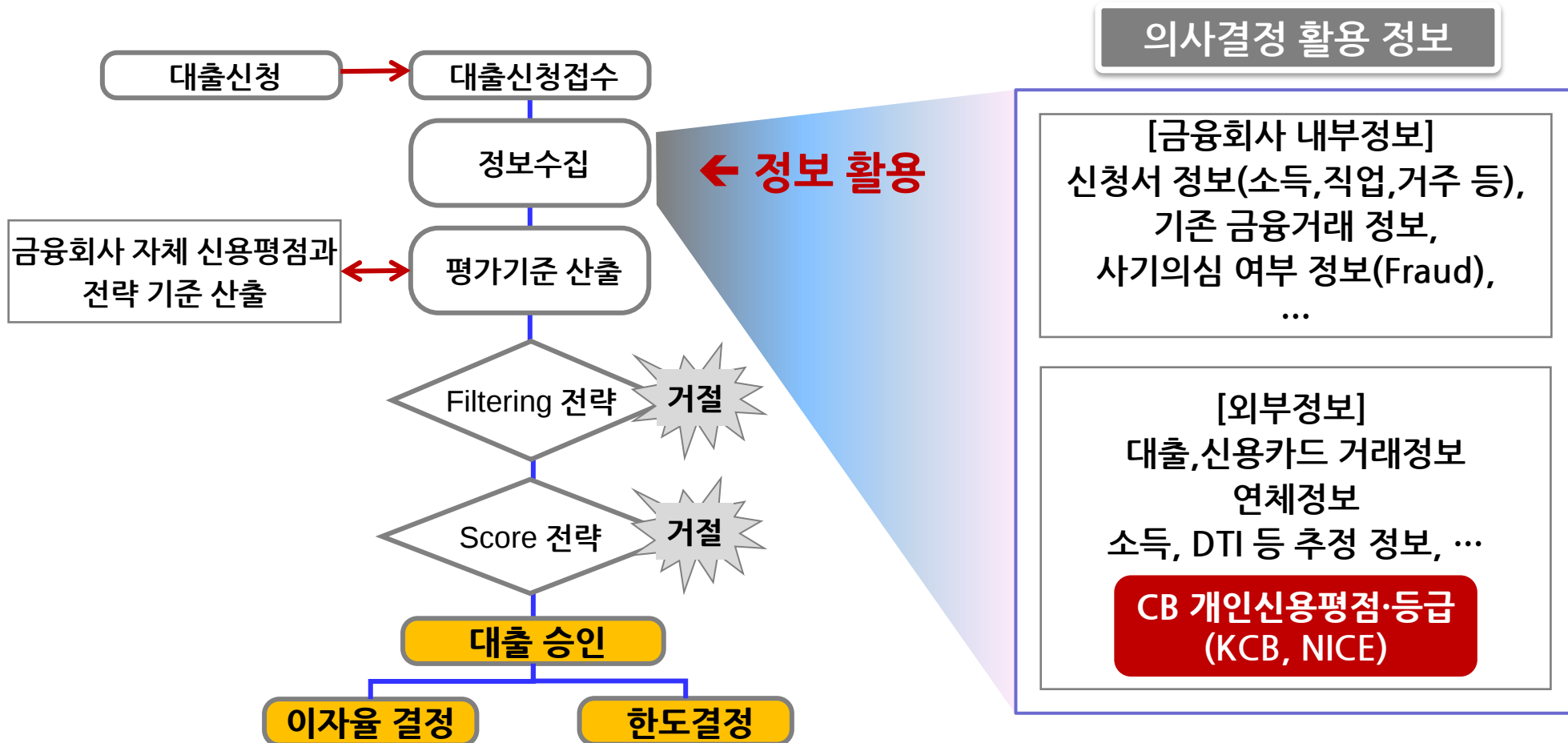
개발주체와 이용목적에 따라 CB 개인신용평점(CB Score)과 금융회사 자체 개인신용평점으로 분류

	CB 개인신용평점	금융회사 자체 개인신용평점
평가대상	• 전국민(불특정 다수)	• 자사 금융거래 고객 및 신청고객
평가목적	• 채무불이행(=불량)에 대한 서열화(상대적 서열화)	• 신용도 서열화를 통한 자사 여신거래 여부(Cut-off) 및 한도·금리 결정
활용정보	• CB에 합법적으로 수집된 대출, 카드,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	• 금융회사 내부 정보(수신, 신상정보 등) 및 외부 정보(CB 정보 등)
모형 특이점	• 다양한 대상과 목적에 활용 가능한 범용모형	• 특정 고객집단(예 : 대출·카드 고객)과 활용 목적(예 : 대출승인, 한도조정)에 특화
평점 미산출 대상	• 신용정보 미보유자, 미성년자 등	• 내부 대출(여신)취급 규제자 등

5. 금융회사 활용현황

CB 개인신용평점·등급은 금융회사의 여신 의사결정에 내부정보와 더불어 참고지표로 활용

금융회사 심사 프로세스



Ⅲ. 신용 인프라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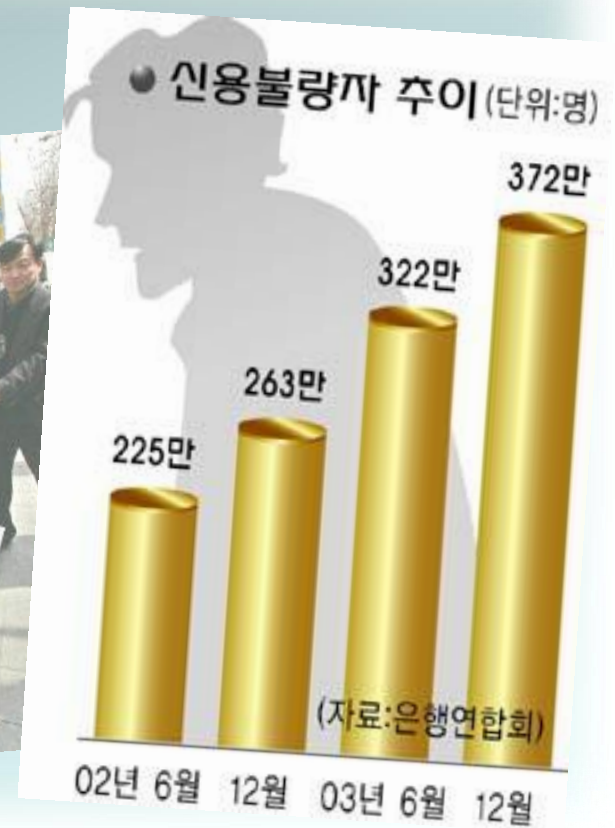
1. 신용정보 공유 필요성
2. 신용정보 공유 역할과 효과
3. 신용정보 공유 현황
4. 신용정보 취급기관

1. 신용정보 공유 필요성 - 신용시장의 위기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시장의 위기

-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신용 급속 확대(채무상환능력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공급)
→ 연체율 상승과 신용불량자 양산(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 꼴인 372만명, '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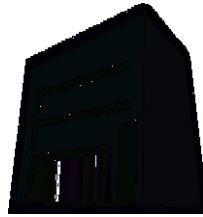
1400만명 '돌려막기' 배상



1. 신용정보 공유 필요성 - 신용위기의 교훈

개인신용시장의 인프라 미비로 인한 『정보 비대칭성』

- ❖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음



금융회사 : 역선택(Adverse Selection)

- ❖ 대출에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보다 적극적
-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실패



금융이용자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 대출 이후 상환을 하지 않을 유인 발생
- ❖ 신용이용의 과도한 사용으로 가계부채 확대

2. 신용정보 공유 역할과 효과

정보 공유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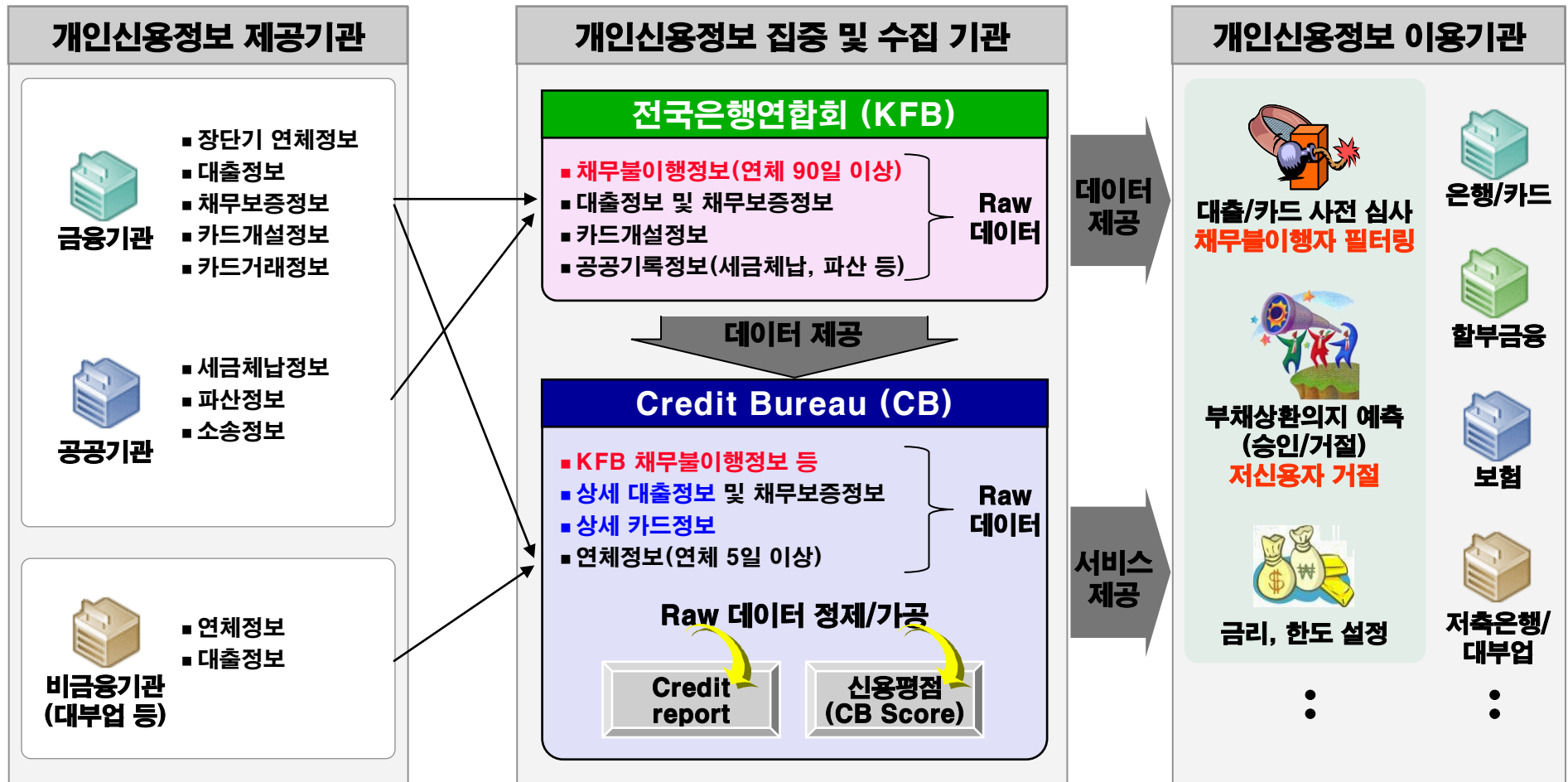
- 신용공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소비자인 금융이용자간에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개인신용시장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 금융기관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

정보 공유의 효과

신용공여기관 (금융회사)	신용평가 가능	▪ 금융회사가 차입자의 성향 파악과 대출금의 회수가능성 예측이 가능하여 리스크 관리와 적정 가산금리 산정
	경쟁 촉진	▪ 금융회사간 경쟁을 유도하여 보다 공정한 가격 결정을 가능하게 함
소비자	도덕적 해이 축소	▪ 여러 금융회사에서 과다하게 대출을 받으려는 차입자의 동기를 억제
	신용기회 확대	▪ 금융회사에서 보다 많은 여신이 낮은 이자율로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의 신용기회가 확대되고 상환가능성이 높은 차주는 낮은 금리로의 차입 가능
국민경제	Incentive Effect	▪ 대출금의 상환유인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신용사회의 정착에 기여

3. 신용정보 공유 현황

개인신용정보는 PCR(은행연합회)과 민간 CB를 통해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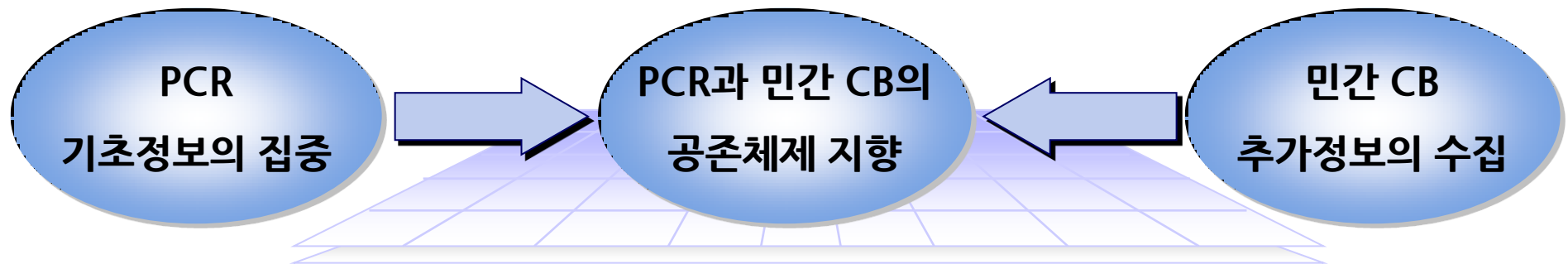
4. 신용정보 취급기관

신용정보 취급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와 업권별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고 있는 “민간 신용정보업체”로 이원화

	PCR (Public Credit Registry) “은행연합회”	CB (Credit Bureau)
설립목적	금유회사 감독,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
정보수집 원천	감독대상 금융회사	금유회사, 소매회사, 유통회사, 통신회사 등
정보제공 의무	법으로 정보집중 강제	민간 자율에 의한 상호호혜주의 (Reciprocity)
수집정보	- 기초정보 중심으로 집중 90일 이상 연체 및 Total Exposure를 판단할 수 있는 대출 및 카드 정보	- 상세정보까지 수집 - 은행연합회정보 + 회원사의 제공 정보
제공상품	수집한 raw data를 그대로 제공 (Raw Data 형태의 제공)	수집한 raw data를 가공하여 부가가치 상품 제공 (CB 개인신용평점 등)

4. 신용정보 취급기관 - PCR과 CB의 역할

PCR은 부정적 정보와 기초적인 긍정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민간 CB는 경쟁원리에 기초하여 추가 상세정보 수집과 부가가치 서비스 개발로 정보의 사용가치를 증대



PCR의 역할 정립

- 공적 기능의 위탁수행자로 정체성 정립
 - 의무적인 신용정보 집중방식은 지속
 - 정보집중범위는 일정수준에서 유지
 - 공공정보 수집기능 확충
 - 정보의 정확성 제고

민간 CB의 활성화

- 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한 투자와 영업활동
 - 정보의 양과 질 제고
 - 전문인력 확보 및 선진기술 도입 등 투자
 - 시장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제공

*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의 개선방안, 신인석, 2003년 (KDI주최, 금감위·재정경제부 후원 간담회 발표 자료)

4. 신용정보 취급기관 – 민간 CB 현황

우리 나라의 민간 CB는 KCB와 NICE의 양사 체제

- 불량정보 중심(KIS, NICE) → 국내 최초의 포괄적 CB(우량 + 불량정보) KCB 설립



구 분	NICE신용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설립연월	(KIS) '85.2 / CB사업 개시 '02.2 (NICE) '86.9 / CB사업 개시 '02.11	'05.2
기업형태/대주주	상장기업 / 개인	비상장기업 / 19개 금융기관
사업영역	CB사업, 채권추심 등	CB사업만 영위
정보공유 회원사	중소 금융기관 중심 (최근 대형금융기관 확대)	대형금융기관 중심
주요 정보	불량정보 위주의 신용정보 (최근 우량정보 확충 시작)	우량 + 불량 신용정보로 출발

※ 우량정보 : 대출/카드이용정보(신용카드 이용금액, 대출상환내역 등), 식별 및 능력정보(직업, 직장, 연락처, 소득 등)를 의미

◆ 법, 제도, 금융시장의 경쟁환경,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각국의 CB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

유럽	미국·영국
▪ 프라이버시 보호 전통 → 정부주도의 공적 PCR을 통해 제한적으로 정보 공유	▪ 민간 자율 성향 → 민간 CB를 통해 활발하게 정보 공유

◆ 그러나 공적 PCR이 있는 국가에서도 금융발전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 CB가 등장

PCR	민간 CB
▪ PCR은 주로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운영되며, 개인의 신용정보를 법규에 의해 강제 수집 ▪ 정보수집 대상 : 주로 은행에 한정 ▪ 정보공유 범위 : 금융감독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정보에 국한 (연체정보, 거액여신 대출 등)	▪ 민간 CB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자율적으로 수집 ▪ 정보수집 대상 :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회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업체 및 기관 ▪ 정보공유 범위 : 불량정보, 우량정보, 공공기록 정보, 비신용정보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

IV. 개인신용평가체계의 문제점



1. 신용평가 괴리감
2. 저신용자 금융접근성 악화

1. 신용평가 괴리감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신용과 신용평가체계에서 평가된 신용간에 괴리가 있음

➔ 신용평가체계의 공정성,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의 이의제기

신용이력에만 의존한
일방적 서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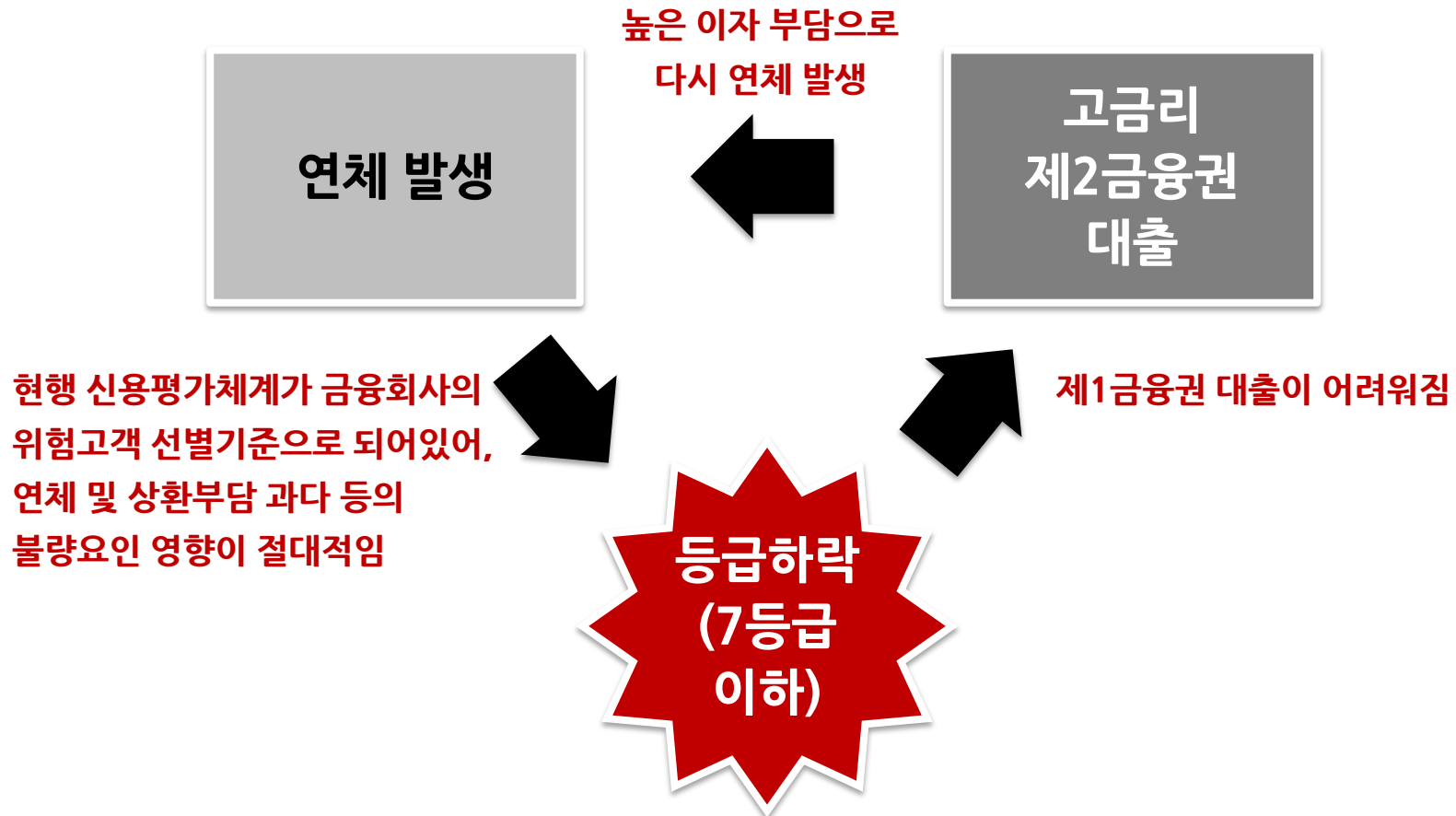
신용행동 결과 중심(신용이력)의 평가로
개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신용은 좋지만 금융거래가 없거나 적은 개인(no-filer, thin-filer)에 대한 평가 불이익 가능성
- 신용여력(상환능력), 신용성향과 같은 유의미한 평가요소의 평가활용 미흡
- 신용개선 노력과정의 평가반영 미흡

2. 저신용자 금융접근성 악화

연체 발생시 저신용자(7~10등급)로 평가되면 신용등급이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 가능성이 높음

➔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 감소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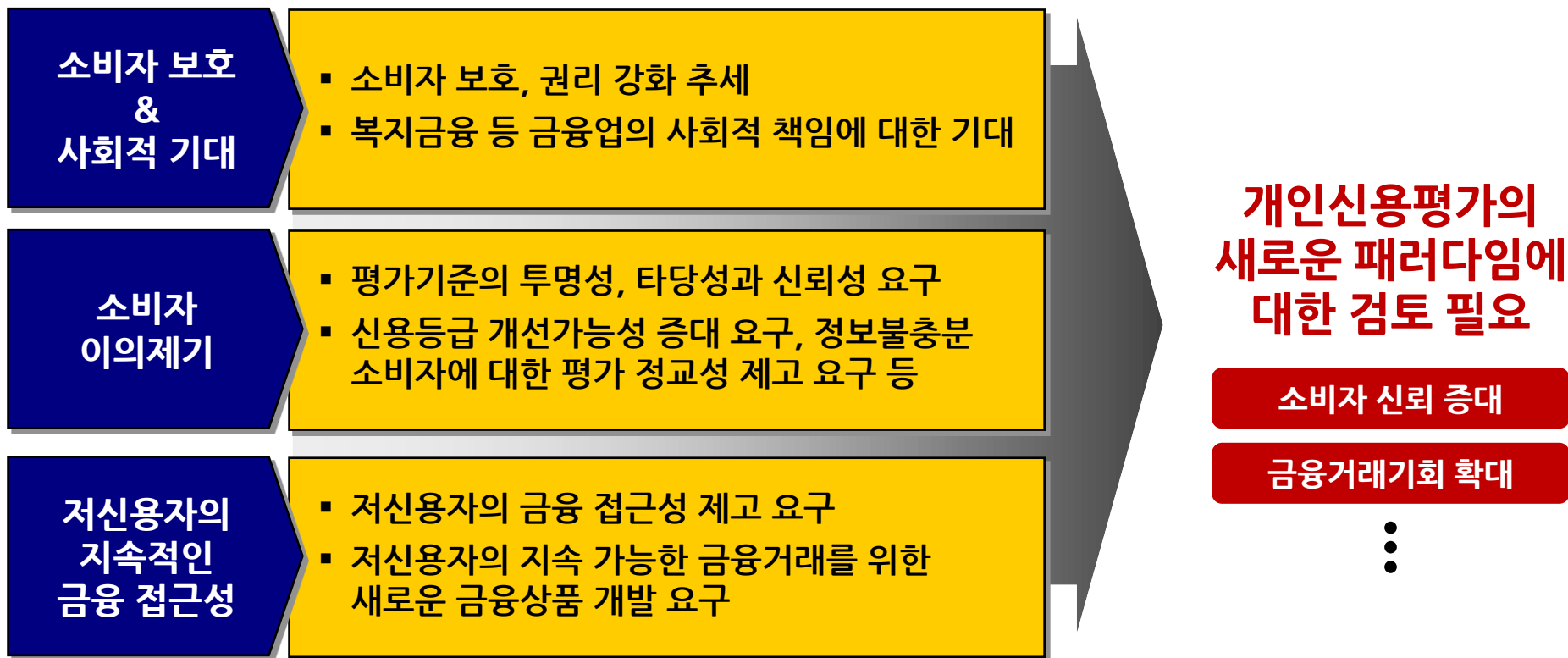
V. 새로운 개인신용평가체계, K-Score



1. 개발배경
2. 개발경과
3. 기본사상
4. 주요특성
5. 기대효과
6. 주요결과
7. 발전과제
8.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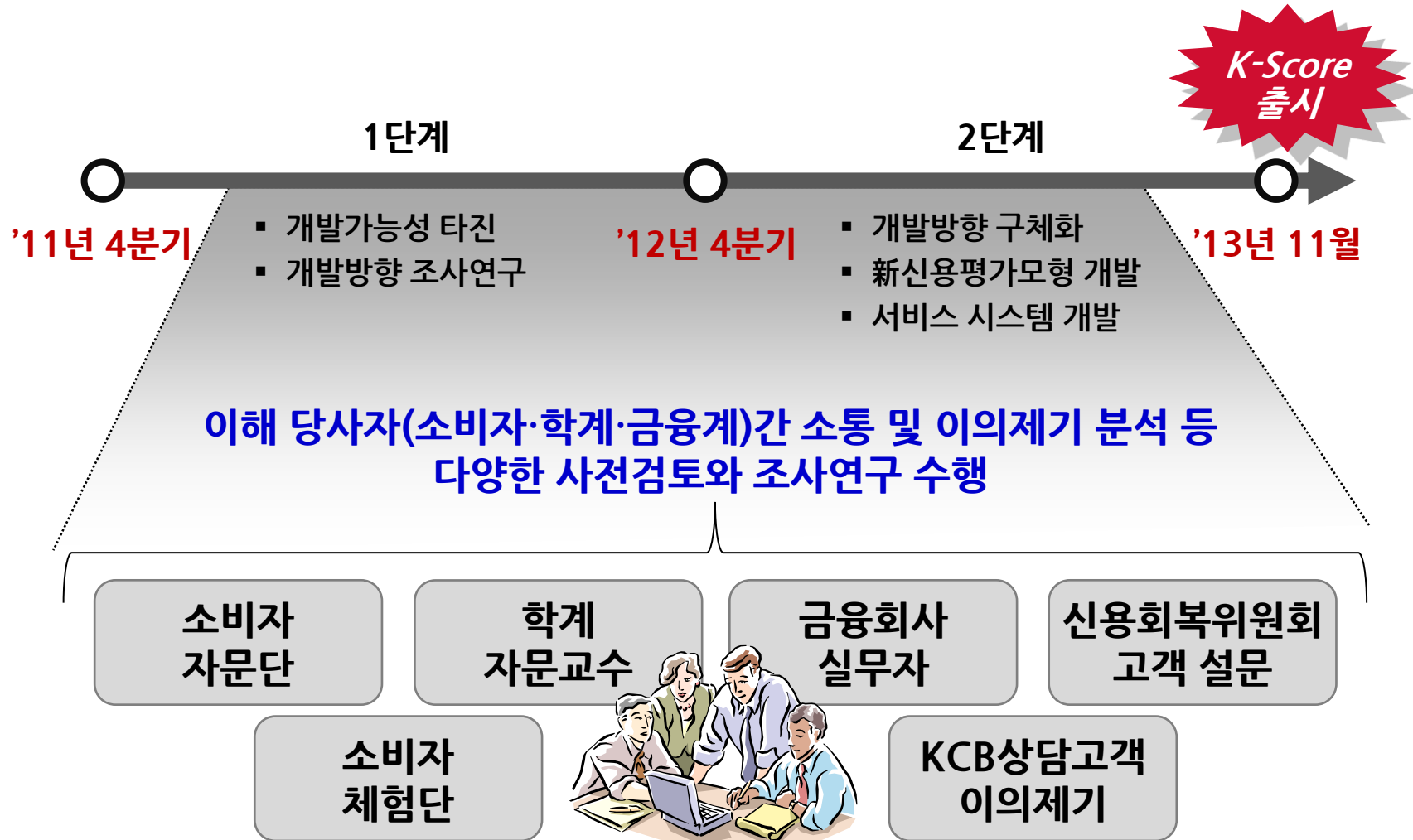
1. 개발배경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이의제기 및 요구사항 증대, 저신용자의 지속적인 금융 접근성 보장 필요에 따라 새로운 개인신용평가체계의 개발 필요성 증대



2. 개발경과

소비자·학계·금융계 의견 수렴, 이의제기 분석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개인신용평가체계의 개발방향을 도출하고 총 2년에 걸쳐 K-Score를 개발하였음



[참고] 소비자 자문단

소비자 자문단은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해당사자간 소통의 장으로 '12년부터 운영되었으며, 평가개선 주요 의견은 K-Score 개발에 반영되었음

자문위원	학계 + 소비자 단체 + 금융계 각계 대표인사로 구성(총 8명)	
 운영현황	2012년 ▪ 1차(3월) 개인신용평가 개요 ▪ 2차(5월) 신용 인프라의 역할 ▪ 3차(8월) 최근 개인신용평가 이슈 및 개선사항 ▪ 4차(11월) 소비자 신용관리수준 제고방안	2013년 ▪ 1차(2월) 소비자 소통형 평가체계 구축 ▪ 2차(5월) 신용 인프라의 역할 ▪ 3차(8월) 금융회사의 책임대출 관행 정착방안 ▪ 4차(11월) 소비자 소통형 개인신용평가, K-Score

평가개선 주요 의견

- 소비자 관점의 이해 필요, 소비자 의견 적극 반영
- 평가기준의 설명력,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소비자 신용교육 및 신용상담 기능 강화

3. 기본사상

K-Score는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소비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지향함

소비자와 소통하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새로운
Data

- 소비자를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Data를 수집

새로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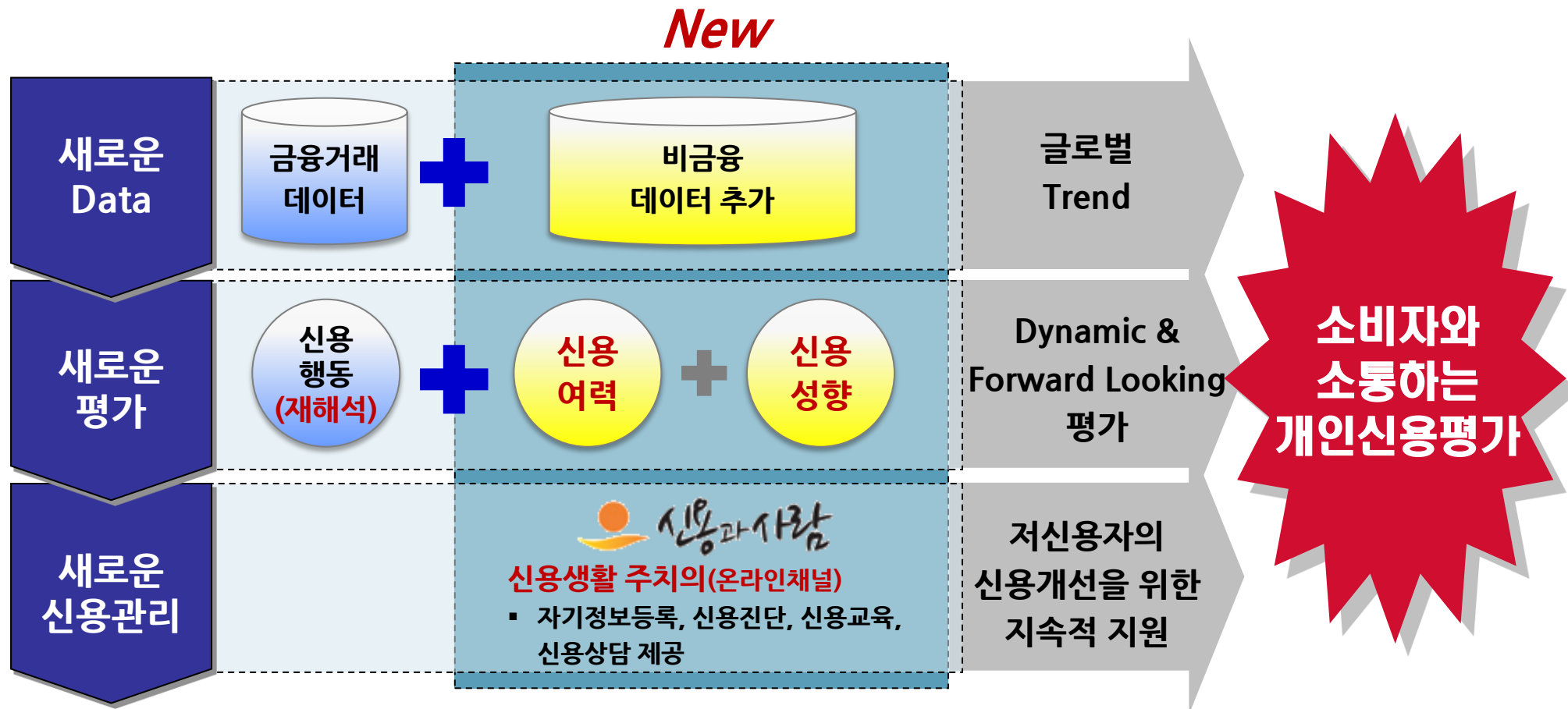
- 소비자 관점의 평가기준 반영과 새로운 평가요소 도입

새로운
신용관리

- 소비자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신용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 (진단·관리·교육)

4. 주요특성

K-Score는 소비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Data를 반영하고, Dynamic & Forward Looking 관점으로 평가요소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지속적 신용개선을 지원하는 소통형 신용평가체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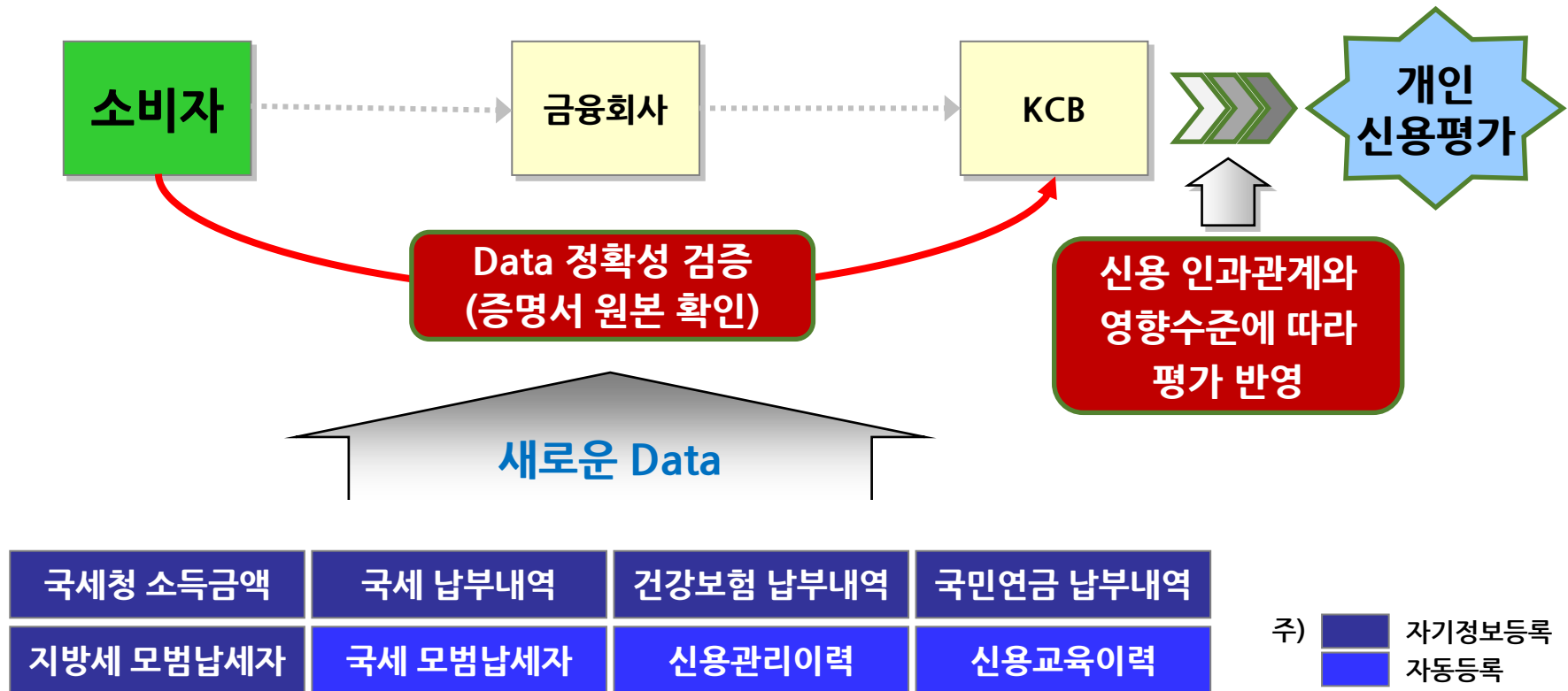


4-1. 새로운 Data

자기정보등록을 통하여 새로운 Data를 평가정보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용개선 의지를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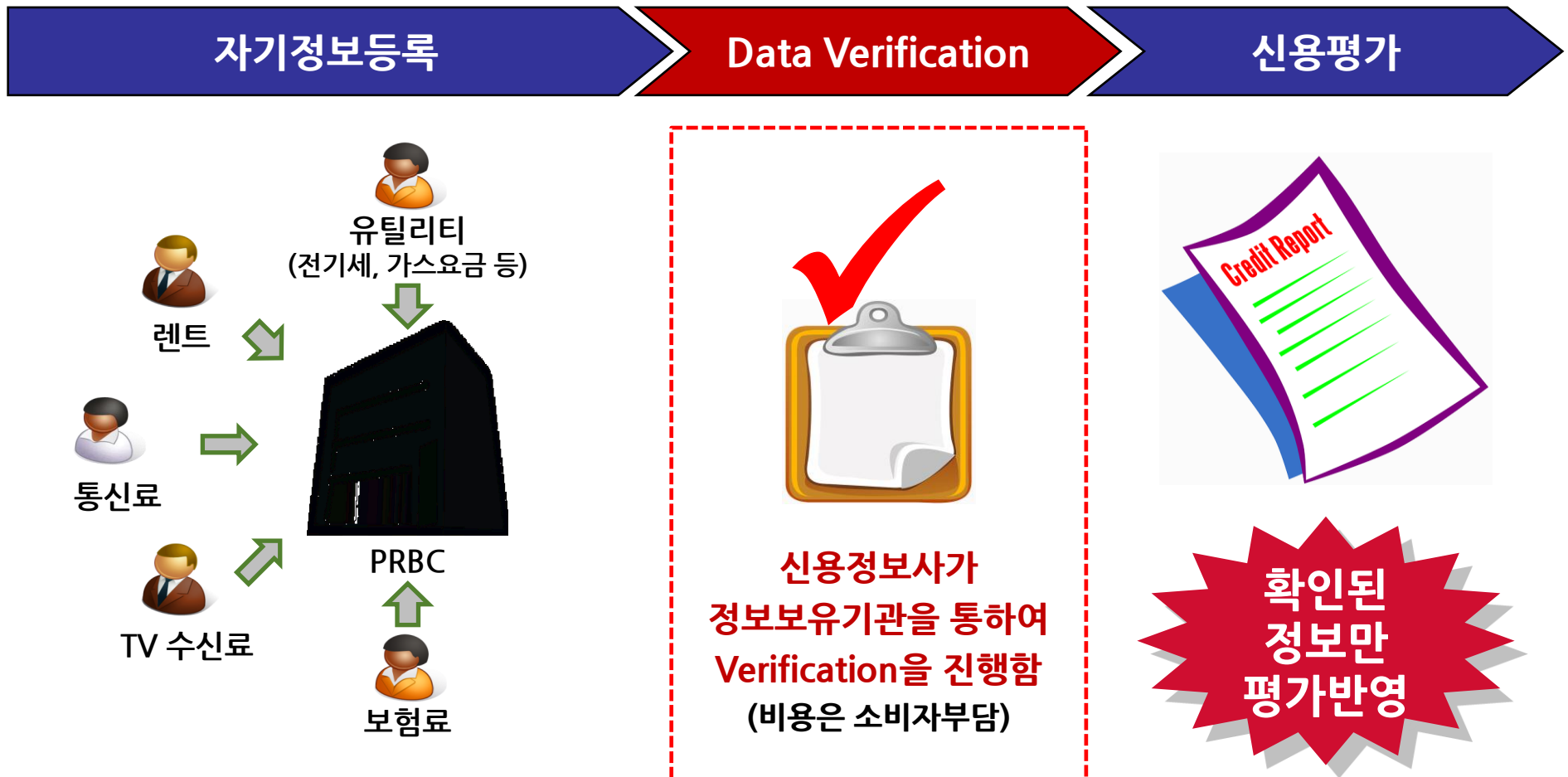
..... 데이터 수집 흐름(현재)

→ 데이터 수집 흐름(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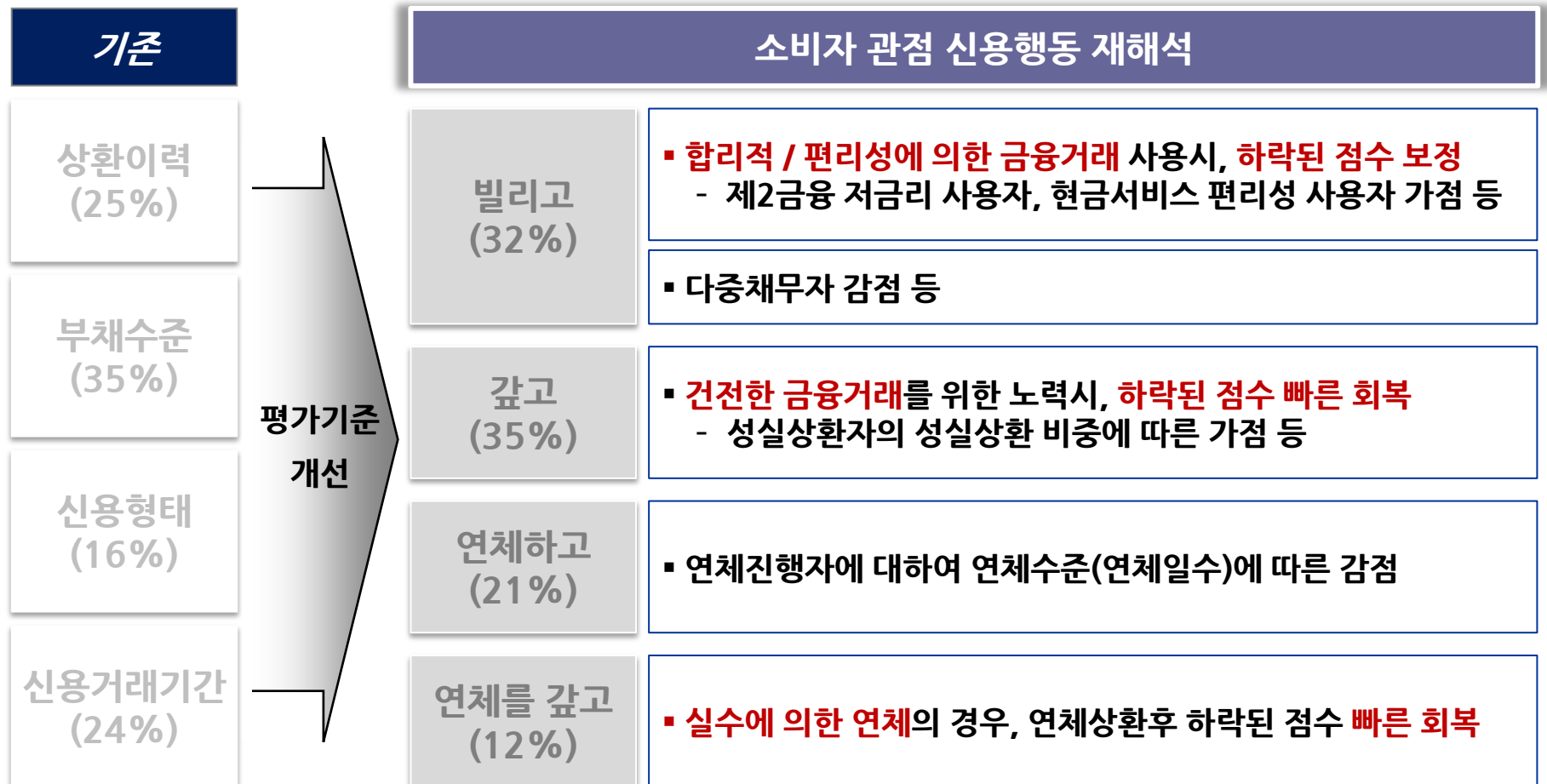
[참고] 해외 자기정보등록 활용사례

미국 신용정보사(PRBC, Pay Rent Build Credit - '02년 3월 설립)는 자기정보등록을 통하여 우량상환 및 납부내역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된 정보만을 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4-2. 새로운 평가 (신용행동)

기존 개인신용평가의 신용행동 평가기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평가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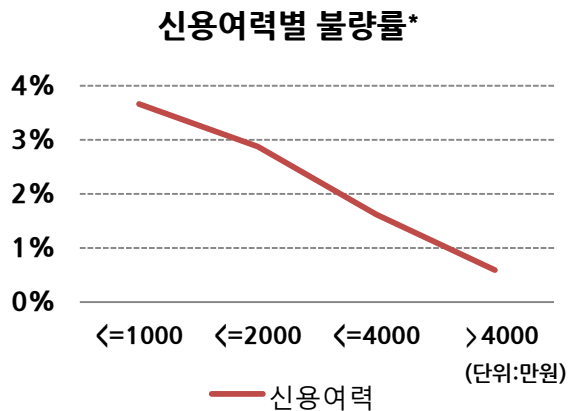
4-2. 새로운 평가 (신용여력)

상환능력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용여력과 소득안정성을 새로운 평가요소로 추가함



신용여력 고려 Score 상승

- 개인의 소득에서 지출과 상환예정부채를 차감한 신용여력이 양호하면 상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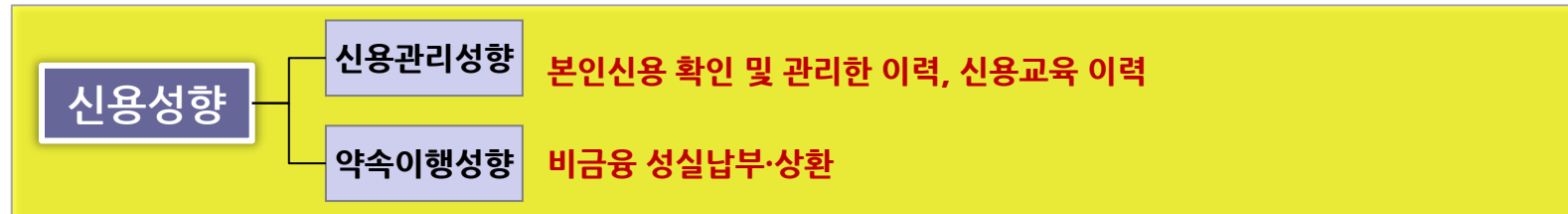
소득안정성 고려 Score 상승

- 소득 창출이 일정기간 유지되면서, 소득변화가 유지/상승 추세이면 상향 평가

소득추세	불량률
유지/상승	3.0%
하락	4.5%

4-2. 새로운 평가 (신용성향)

금융거래정보가 없거나 불충분한 소비자의 평가 정교성을 높이고 신용개선노력과정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용관리성향과 약속이행성향을 새로운 평가요소로 추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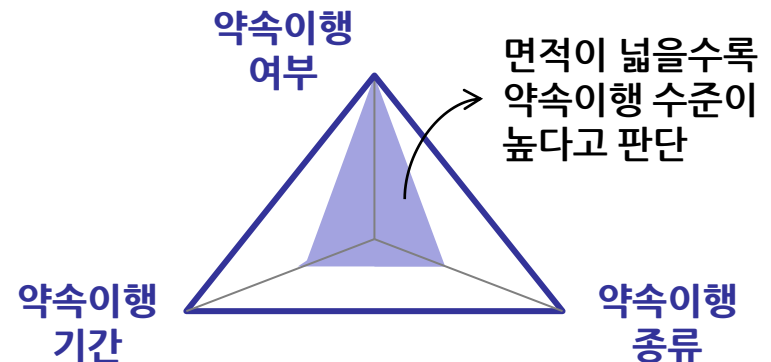
신용관리성향 소비자 Score 상승

- 꾸준히 신용을 관리하는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소비자 대비 불량률이 낮음

신용관리수준	CB 등급별 불량률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신용관리자	2.4%	4.6%	7.3%	15.5%
신용미관리자	3.8%	9.5%	10.5%	28.9%

약속이행성향 소비자 Point 부여

- 약속이행성향 : 정성적 판단
(Point는 향후 Score에 반영)



4-3. 새로운 신용관리 - “신용과 사람”

“신용과 사람”(www.sinsa.co.kr)을 통하여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건전한 신용생활 및 신용개선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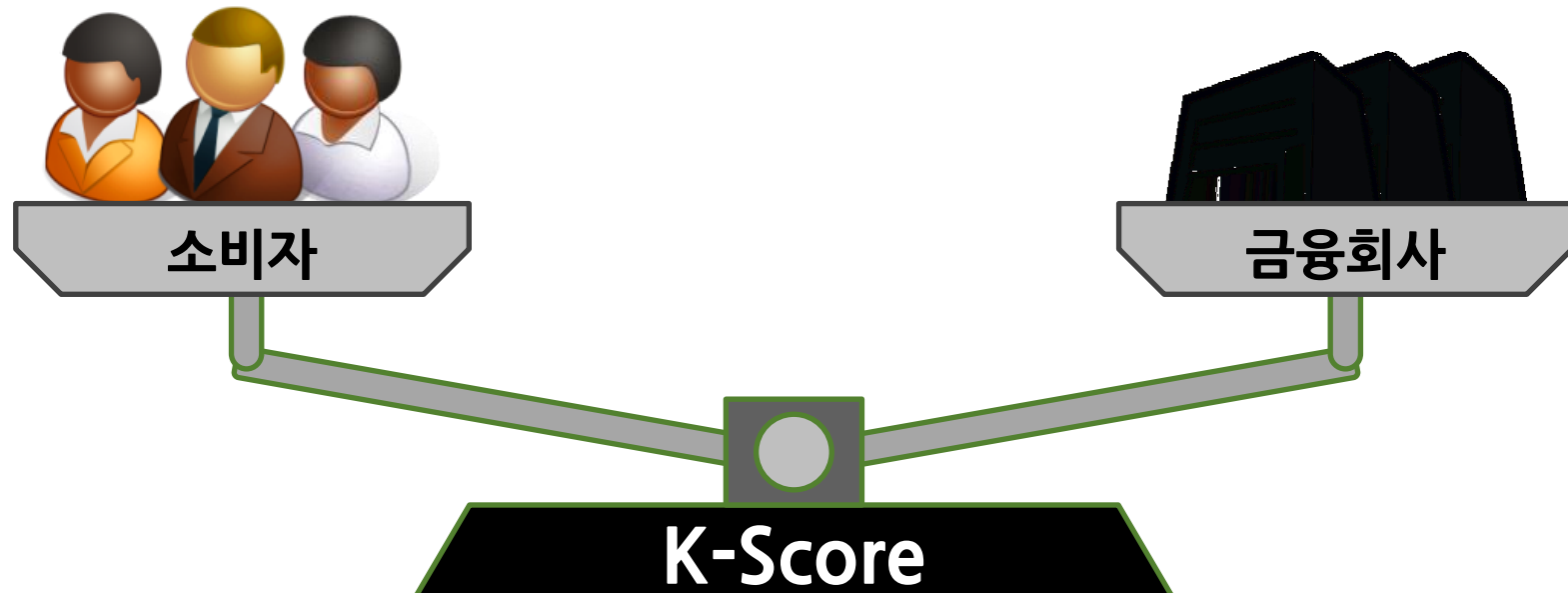
자기정보등록 및 신용관리/신용교육 등 신용개선노력을 신용평가에 반영

5. 기대효과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win-win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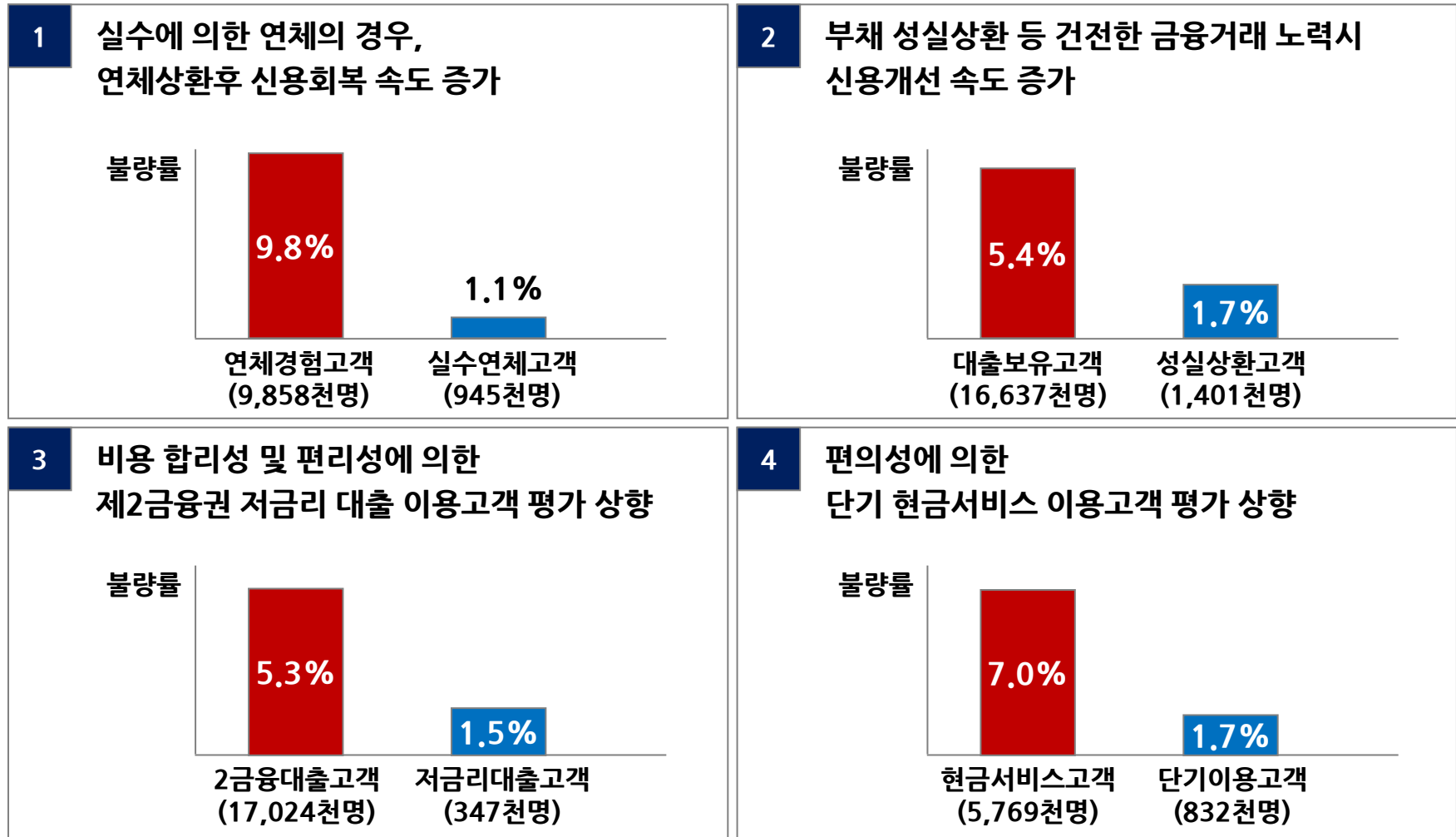
- 신용평가 공감·신뢰감 형성
- 신용개선 가능성 증대
- 신용관리 역량강화
- 금융 접근성 제고

- 소비자 보호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
- 우량고객군 추가 선별 및 거래기회 확보



6. 주요결과 1 - 합리적 평가, 소비자 신뢰확보

실수에 의한 연체 상환후 신용회복 속도가 증가하고, 부채 성실상환 등 건전한 금융거래 노력시 신용개선 속도가 증가하는 등 합리적 평가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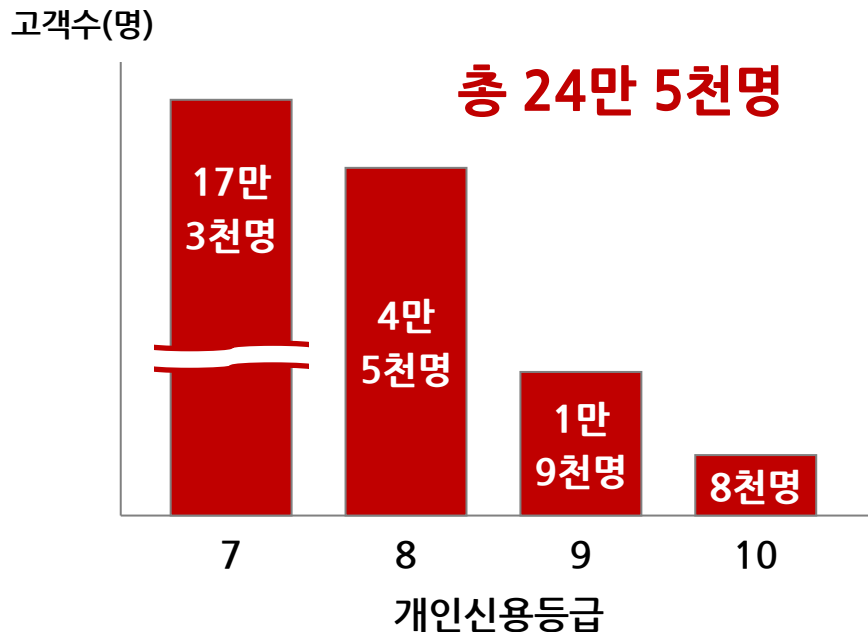


(분석대상 : '12.2.15 현재 KCB 등록고객 39,536천명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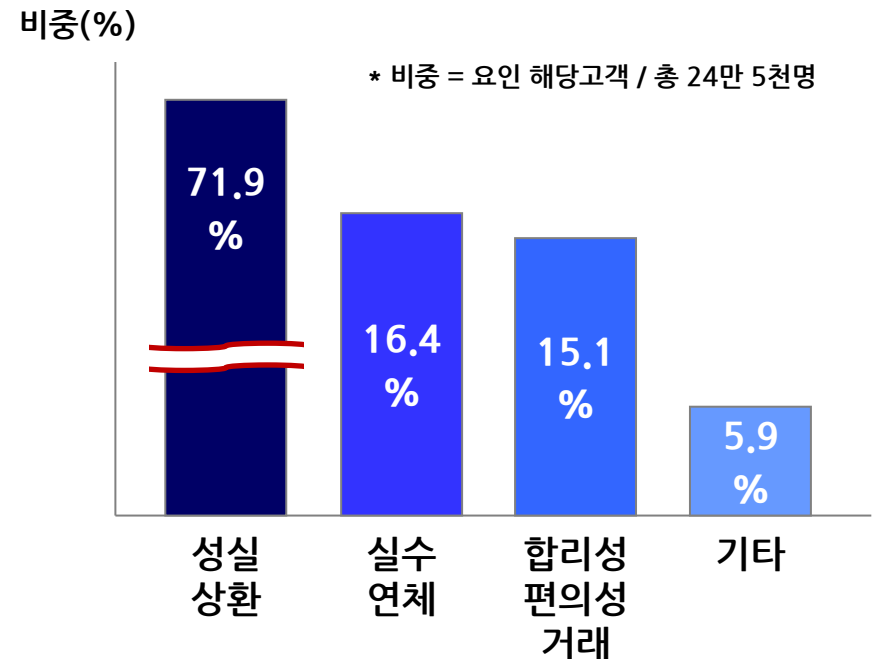
6. 주요결과 2 - 저신용 소비자 등급개선

약 570만명의 하위등급(7~10등급) 고객 중에서 24만 5천명(4.29%)의 등급이 개선되며,
등급 향상의 주요 요인은 부채성실상환 등임

등급별 개선고객 현황



등급개선 주요 요인



기존의 평가체계로는 구별하지 못했던 저신용 소비자 중의 우량한 고객을 보다 잘 선별하며,
개인신용평가모형의 전체 변별력도 기존보다 높아짐

[예시] K-Score의 신용생활 영향



평범한 가장 정00 (42세)

- 할부금융사에서 저렴한 금리의 신차대출로 자동차 구입후 대출금을 연체 없이 성실상환 중
- 해외 출장 중 바쁜 업무로 카드결제일을 놓쳐 결제대금 45만원을 11일간 연체하였으나, 귀국 후 바로 전액 상환함

현재 상황

- 크게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5천만원의 대출이 필요

기존 개인신용평가



등급 사유

- 제2금융권 대출 있음
- 연체경험 있음

K-Score
평가

K-Score



등급 재평가 사유

- 합리적 부채 이용
(저금리 제2금융권 대출)
- 실수에 의한 연체

7. 발전과제

새로운 개인신용평가체계의 확산을 통한 건전한 신용사회 발전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평가 데이터 다양화

- 다양한 신규영역 정보 수집
 - 공공요금, 통신료 등
- 소비자 자기정보등록 범위 확대 및 편의성 제고
 - 소비자 직접 등록대신
소비자 정보 보유기관을 통한 등록 추진
(소비자 동의 전제)

소비자 소통 강화

- 새로운 개인신용평가체계에 대한 소비자 의견 수렴
→ 소비자 관점의 평가체계로 완성

8. 향후 운영계획

K-Score는 2013년 금융회사 도입을 추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평가·신용관리지원 수준을 확대 강화할 예정임

